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6(土) 구름 조금 17/27°C	7(日) 흐려져 비 19/26°C
--------------------------	--------------------------

News

- 美 쇠고기서 또 등뼈 ②
- 中, 흑피옥 내년 발굴 ④
- 광주체전 총감독 출사표 ⑯

Jeollado

- 그 사람 - 김정길 前 장관 ⑦



Entertainment

- 연예계 '광주 파워' ⑧
- 한국영화 부활의 노래 ⑨

Wellbeing

- 식품 탐구 - 새송이버섯 ⑯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빛과의 만남' 시작되다

5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7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식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희호 여사,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피터 잭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장, 자크 랭 세계그래픽디자인협회장 등이 전시장 개막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빛 LIGHT'를 주제로 열리는 '2007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세계 45개국 디자이너 927명과 103개 기업(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11월 3일까지 30일 동안 진행된다. ▶ 관련기사 2면 /니명주기자 mjna@

亞문화전당 2012년 개관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춰...문화수도 투자 5조3천억

문광부 최종 확정...盧대통령 참석 8일 선포식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애초 계획보다 2년 늦춰진 2012년 개관된다.

반면 전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는 예상 소요액보다 4천억원이 늘어난 5조 3천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문화관광부는 이런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을 노무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05년 11월 30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예비종합계획이 발표된 지 2년여만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32주년과 연계해 2012년 5월 18일 개관키로 했다. 애초 기술적인 면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을 겨냥한 정치적 고려에 의해 공사일정이 줄속으로 잡힌다. 랜드마크 논란·광주읍

성 등 부지 내 문화재 발굴 등이 겹치면서 준비에 차질을 빚어 공기 연기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는 이어 따라 11월 중에 광주시와 건축협의회를 한 뒤 12월 중순 공사 발주에 이어 내년 초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문화관광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 민주평화교류원▲아시아문화정보원▲문화창조원▲아시아예술극장▲아린이지식문화원 등을 배치해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핵심 거점시설의 역할을 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화관광부는 논란이 돼온 랜드마크와 관련 내년 중에 전문 연구용역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제 공모를 통해 보완 상정물을 문화전당 인접 지역에 건립하기로 했다.

또 전문공연장은 전당 내 시설을 최대 활용하되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광주문화에

슬하관을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문화전당 외곽주차장은 600대 규모의 내부 주차장을 둔 상태에서, 인근 광주여고 부지 등에 1천여대 규모의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게 된다.

이율러 광주 도시기본계획 등과 연계해 7대 문화권을 조성하고 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등도 추진된다.

또 오는 2023년까지 전체 조성사업 투자 소요액은 국비 2조8천억원, 지방비 8천억원, 민자 1조7천억원 등 총 5조3천억원으로 제시된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제시된 총 4조9천억원보다 4천억원 가량 증가한 것이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랜드마크 상징물 건립, 예술인 창작촌 등 사업이 확정되고 문화전당 등의 투자소요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며 "문화분야에서 전례가 없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오는 2008년 등 4차례의 중간평가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대국민 보고회'를 갖는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는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지난해 9월 특별법이 제정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자기정부 이행 로드맵 필요"

盧대통령 "정상선언 흐지부지 안되게 정리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5일 '2007 남북정상 선언'과 관련, "다음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로드맵을 명료하게 만들어 이행하는데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도록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면>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두 밝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나는 비용이 크게 드는 것이 없을 것이라 고 봤는데, 비용문제도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이 얼마만한 기간에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명료하게 매듭지어 남북간에 명료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오늘 조금 급하게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며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각 부처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부처간 인식도 공유하고 나아가서는 세부적인 실행계획들을 세우고 이후에 총리회담이 있

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략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상회담 성과를 내각 차원에서 뒷받침할 법정부적 후속 조치를 집중 논의, 이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이번 주 중 정상회담 준비기획단을 후속조치 추진기획단으로 개편하고 법정부 차원의 협의 및 추진기구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07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향후 남북관계 전망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에 고위급 대표를 파견키로 했다.

한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노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추진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이 제안은 북측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백악관 "남북정상 합의, 美 입장과 일치"

미국은 4일 남북 정상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반도 지역에서 3~4자 정상회담을 추진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든 존드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국전쟁을 공식 종료하는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

는 북한이 자국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토록 한 협정을 준수하느냐 여부에 달린 것"이라고 밝혔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남북 정상의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합의는 미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의 기존 입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저도 까스활명수
좋은거 다 알아요!!”

젊다고 뭐든지 다 소화시키는거 아니잖아요.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저는 그럴 땐 까스활명수만 마셔요.

소화에 좋은 11가지 생약성분까지 있으니까 –

부처표 까스활명수 좋은거 저희도 다 알아요

11가지 생약성분 소화제- 부처표 까스활명수큐!



부처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소화를 끓는 까스활명수의 11가지 생약성분 : 아산약, 고추틴크, 계피, 육두구, 현호색, 정향, 창출, 건강, L-Menthol, 진피, 후박

부처표에 있을 수 있으니 침투된 '시동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해주세요. 광고심의필 928-0200

11가지 생약성분- 부처표 까스활명수 큐

